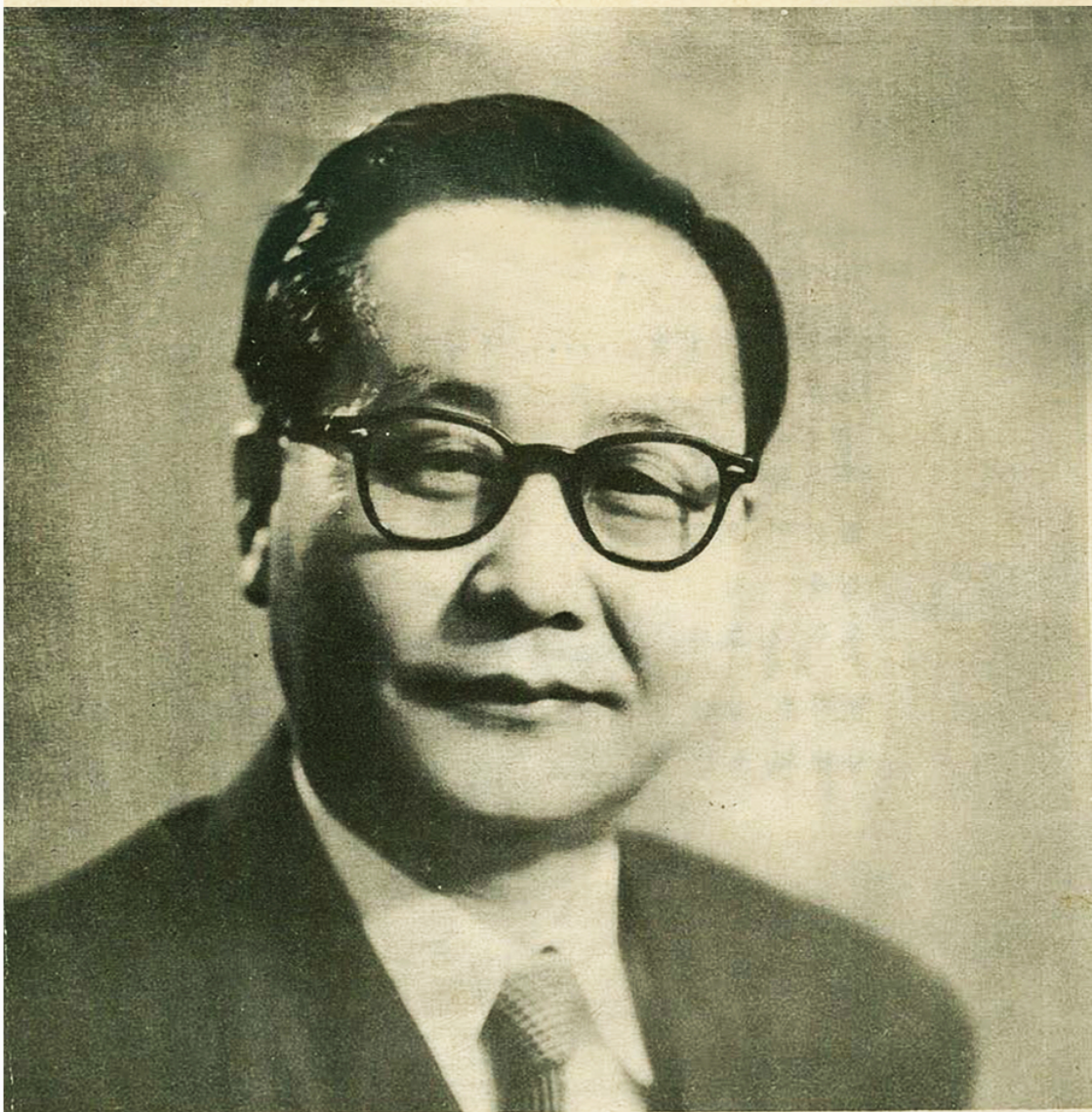


# 성도의 벗



창간호

## 목 차

예언자의 말씀 .....	대관장 데이브 오. 맥케이	( 1 )
성도의 길 .....	고 김호직 장노	( 11 )
김호직 장노를 추모하면서 .....	정대관 형제	( 13 )
당신의 의문 .....	조셉. 필딩 스미스	( 17 )
건축 소식 .....	편집자	( 21 )
노무 섭교사 의 간증 .....	노무 섭교사	( 22 )
내지부 자랑 .....	삼척지부	( 25 )
삼향회 소식 .....	지방부 삼향회	( 35 )

젊은이들, 하루는 위험하네", 하고 강기슭에 서서 고함친 것으로 그쳤다는 점이에요 또 하나는 물줄기를 따라 다른 배를 타고 들어가서, 가능하다면 젊은이들의 배에 옮겨가 동승하고 설복시키며, 필요하다면 강권을 발동하여서라도 급류로 휩쓸려 들어가고 있는 그 배의 방향을 상류로 돌려 주었어야 옳았다는 점입니다. 우리들은 대부분이 "자네들 위험하네"하고 고함치며 강기슭에 서있는 상태에서 만족하고 있습니다.

오늘아침에 나는 젊은이들의 성공과 행복을 위협하는 세가지의 위험물에 관하여 모든 젊은이들에게 경고해 주고 싶은 생각을 품게 되었습니다.

첫째는 흡연을 하는 극히 해로운 습관이에요

둘째는 점차로 증가하고 있는 이혼자의 숫자요

셋째는 도덕적인 표준의 신성성을 무시하는 경향에 관한 것입니다.

131년 전에 죠셉 스미스는 "...마지막 날에 있을 모든 성도들의 육체적인 구원의 차례와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읍니다.(교리와 성약 89:2) 그것은 곧 인간의 육체와 지혜와 도덕과 영적인 본성에 깊은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더우기 그것은 건강과 활력을 뒷받침하는 인간의 기호에 관계를 갖고 다루어 집니다. 인간의 기호와 충동에 대한 반응은, 그것이 대두되었을 때, 다른 사람들도 하여금 자기의 인격을 저울질 하도록 하게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반응은 곧 인간의 지배력을 나타내 주며 또한 인간의 비굴성도 그대로 노출시켜 줍니다. 그러므로 알콜 음료와 마취적인 것과 자극적인 것에 관하여 언급된 "지혜의 말씀"은 그것들이 육체에 미치는 나쁜 영향뿐만 아니라, 인격 형성의 기초를 흔들여 놓는것임을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 주음춤 의 말씀

대관장 데비드 오. 맥케이

수년전 우리의 한 교과서에 이런 이야기가 실려 있었습니다. 즉 어떤 젊은이들이 나이아가라 폭포쪽으로 강 하류를 따라 배를 젓고 있었습니다. 그때 강기슭에서 이것을 보고 있던 어느 사람이 그들에게 고함을 질렀습니다. "어어어, 젊은이들, 하류는 급류라서 위험하네!"

## 어떠한 사람이

실제로 자기의 인격을

결정하는 것인가



그러나 젊은이들은 조금도 그 사람의 경고를 아랑곳 하지 않았읍니다. 마침내 그 젊은이들이 인식했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젊은이들은 온 힘을 다하여 그 배의 방향을 상류로 돌리려 했으나 모두가 허사였읍니다. "결국" 젊은이들에게 경고를 해주던 사람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들은 기를 쓰며 저주를 하면서 폭포속으로 휩쓸려 넘어가고 말았다네"

그 당시 이 교과에서 받은 교훈은 껍으나 인상적인 감명을 내게 남겨주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그것은 결코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한 느낌이 듭니다. 그 하나는 바로, "어어

계시로서 말씀된바와 같이, 자극적인 음료나 담배는 인간에게 해로운 것입니다. 이것은 거의 한세기 동안에 걸친 엄밀한 실험을 통해 입증된바와 같이, 명약과확한 일입니다. 이것은 겨우 27세된 한 젊은이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인 생리학과 위생학을 그는 전혀 몰랐으나, 인격과 영적으로, 정신과 육체에 대하여 많은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모든 시험과 시련을 견디어 내는 확고한 신념과 보증으로서, 자극적인 음료와 담배는, 다만 유평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간에게 해로운 것이라고 그는 선언했던 것입니다.

지난 100년 동안 놀라운 발전을 보여준 과학은 인체의 모든 조직과 두뇌를 해치는 알콜음료와 마취적인 것의 해로운 영향을 실험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관찰과 실험은 또한 그것들이 인격형성에 커다란 영향을 준다는 것도 제시했습니다. 그러한 실험과 관찰은, 곧 "자극적인 음료와 담배는 인간에게 해롭다"고 말했던 젊은 예언자의 선언이 진리임을 증명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권리와 재산을 존중한다는 것은 그 정부가 훌륭함을 말해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것은 모든 개인이 세련되어 있다는 징표인 동시에, 그리스도인들의 중요한 미덕인 것입니다. 니코친은 이러한 참된 문명의 특성을 완전히 말살시키며 또한 문명의 혜택을 희미하게 하고 불행하게도 여자들 까지 가련한 니코친의 희생자가 되게 하였으며 사회에서 최악의 범적자가 되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흡연을 금하는 객실을 배치하고 있는 공인 운수 사업체가 있고, "금연"이라는 표시판을 붙인 식당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표시판을 무시하여 항공 여객기나 열차의 일등객실에서 공공연히 담배에 불을 부치므로써 자기 주위에

있는 동료 승객들의 기분을 완전히 불쾌하게 만들어 놓는 여성들을 가끔 볼 수 있습니다.

많은 공공물건들은 타다남은 성냥개비와 담배 공초로서 어질러져 있습니다. 호텔이나 아파트나 가정에 막대한 피해를 가져다 주는 화재는 피우다가 남은 담배를 부주의 하게 내던지거나 함부로 버려두는데서 기인됩니다.

만일 남자나 여자가 담배를 피워야 하는 것이라면, 그리고 이미 다수의 사람들이 그러한 습관에 젖어있다면, 청결하고 말끔하게 하기 위하여,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기분을 생각하여, 흡연자들로 하여금 가구나 양탄자, 등을 손상시키지 못하게 하며, 기쁨과 교훈을 받기 위해 대중이 모이는 건물안에서 담배재를 털거나 공초를 내버리지 못하게 합시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이유는 차치해 둔다고 하더라도, 담배를 피우므로써 야기되는 훨씬 더 큰 위험이 있음은 최근의 과학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뉴욕시 보건위원장 조지 제임스 박사는 1964년 3월 17일에 경고하기를, "앞으로 6개월 이내에, 뉴욕의 흡연자중 1천명이 폐암이나 인후암이나 기타의 흡연 습관으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하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하였습니다.

1964년 1월 11일, 토요일 신문들은 전국적으로 다음과 같은 기사를 실었습니다:

"정부의 한 특별 과학 단체는 토요일, 다섯가지 형태의 암의 발생 원인을, 흡연하는데서 기인되는 것으로 언급시켰으며, 적절한 치료조치가 필요한 건강상의 위험 까지도 그러한 나쁜 습관이 초래시킨다고 발표했다" 열사람의 과학자와 물리학자들에 의해서 보고된 일련의 이 연구 보고서에서는 또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들 보다도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의

사망율은 특히 많은 질병의 유발로 인하여 훨씬 높은율을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단지 젊은이들의 인격에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그것이 암의 중요한 원인이 된다는 의사와 과학자들의 경고적인 입증으로 보아서도 나는 모든 젊은 남녀들이 어디서나 이러한 끔직한 버릇을 내버리기를 호소하는 바입니다.

우리의 사회를 위협하는 또다른 요소는 점점증하고 있는 이혼율이며, 결혼을 하나의 단순한 협약으로 간주하고, 어떠한 고난과 오해가 초래될 때에는 자유로 헤어질 수 있는 것처럼 여기는 그릇된 경향인 것입니다.

가장 귀중한 재산 중의 하나는 가정입니다. 우리의 선조들과 현재 우리들과의 가족적인 결속은 다른 어떠한 사회적인 유대보다도 훨씬 값진것입니다. 그것은 우선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며 심오한 사랑의 샘물을 넘치게 해주는 것입니다. 가정은 인간의 덕을 길러주는 주요한 학원입니다. 가정에서의 책임과 기쁨과 고통과 미소와 눈물과 희망과 근심은 인간생활에서의 주된 이익을 형성해 줍니다.

"절벽이와 아내에게  
행복한 노년의 분위기를  
마련해 준다는 것은  
진정,  
비장하면서도 숭고한 일일지니  
오 인생이여"

- 로버트 버언스 -

사람이 자기의 가정 외에 다른 곳에 몰두하고 그곳에서 즐거움을 찾는다면 그 순간부터 그의 영혼은 약화일토에 빠

져들게 됩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가정보다 어떤 크럽이 더욱 매력적일 것이며, 이것은 자기의 생활을 위한 최상의 계획을 감당하지 못한채 참된 남성으로서의 마지막 시험에서 낙제를 했다는 쓰디쓴 스스로의 치욕을 고백해야 할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의 실패는 아무런 성공도 보상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사랑으로서 가족의 단결을 증진시키는 가난한자의 귀를집은 하나님 보시기에 더욱 알찬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이며, 다른 어떤 부유한 사람들 보다도 더 유망한 인간성이 깃들여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가정에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실 수 있고 또 행하실 것입니다.

순수한 가정에서의 순수한 마음은 언제나 하늘과 가까운 거리에서 속삭이는데 있습니다.

성전을 보면 고대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현대의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결혼에 관한 그리스도의 이상은, 가정을 파괴하지 않는데 있다는 것과, 이혼은 결과적으로 그리스도의 신성한 교혼을 범한 것이라는 결론을 정당화 시켜주고 있습니다.

나는 이같은 이혼의 원인이 되는 조건으로 남편이나 아내의 일방적인 불성실성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또한 양편의 상습적인 음주행위나, 육체적인 폭행이나, 아내와 가족을 치욕속으로 몰아넣는 장기적인 억압이나, 천진한 소녀의 타락을 방관하는데서 발단되는 것이라는 것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이유외에도 많은 다른 원인들이 이혼 보다 더 죄악스러운 상태로, 결혼생활을 계속 파괴시키는 환경만을 조성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최악의 경우로서 결혼의 관도안에 속하는 하나의 과오이며 재난인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러한 원인들을 해소시킬 수 있다면 결코 이혼이란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가정과 결혼은 영원히 지속되어야 한다는 것



은 그리스도의 이상입니다. 결혼이란 근본적으로 한 가족을 형성하도록 정당하게 승인 받은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어떤 단계에 들어가는 하나의 신성한 관계입니다.

가정보다 더욱 안전하게 행복을 길러 주는 곳은 또 없습니다. 가정은 하나의 작은 천국입니다. 나는 이상적인 가정의 연속이 진정한 천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정생활에서의 만족을 넘치게 하는 것은 지상생활에서 추구하는 희망중에 가장 숭고한 것이다"

항상 저조되고 있는 있는 출생율과 점증하고 있는 이혼율은 가정의 안정과 국가의 불후성을 위협하는 불길한 징조입니다.

이렇듯 가정을 파괴하는 행위에 대한 교훈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고귀한 견해에 따라 우리들은 현재의 경향인 저속된 결혼관을 대치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결혼이 하나의 신성한 의무이며 영원한 것이고 또 영원하게 될 성약으로 존중하도록 합시다.

젊은이들은 남녀를 불문하고, 결혼에 대한 책임과 이상을 배우도록 하므로써, 결혼이란 의무적인 것이므로, 그것은, 쾌락을 종결지어주는 단순한 협정이 아님을 인식 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성간의 순수한 사랑은 지상생활에서의 가장 고귀한 일이며, 또한 자녀를 낳고 기르는 것은 모든 인간의 가장 높은 의무임을 젊은이들은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점으로 보아, 가정에서 자녀들 앞에 도범을 보여주고 가정생활의 신비성과 가족간의 책임을 흥미있게 고취시켜 주어야 하는 것은 부모들의 당연한 의무일 것입니다.

비록 결혼에 임하기 바로 전이라고 하더라도, 결혼이란

상호간의 봉사를 하는 상태이며 받은 만큼 서로 갚아주는 상태이며, 두 사람은 각기 자기의 최선을 다해야 하는 상태라는 것을 두 사람이 똑같이 인식한다면 결혼생활을 실패로 몰아가는 원인이 어느정도 제거될 것입니다.

이러한 죄악에 관하여 빅토 유고는 다음과 같은 감명적인 서술을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율법은 우리의 문명을 지배한다. 그러나 그 율법은 아직도 문명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 유럽 문명에서의 노예는 사라졌다고 일컬어지고 있다. 이것은 하나의 오해이다. 노예는 아직도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천재 여자들만을 침해하고 있다. 그것은 매춘이라고 하는 이름의 노예이다"

이렇듯 인간을 부식시키는 죄악은 비단 여성들 뿐만 아니라 그만큼 남성들도 타락시키고 있습니다.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에는 이중적인 도덕율은 주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젊은 사내들은 아버지로서의 자격을 지니고, 그의 연인은 어머니로서의 자격을 갖추었을 때, 다같이 결혼에 임해야 합니다.

결혼하기 전의 수년동안에 방종하지 않은 순결은 가정에서의 확복과 행복의 원천이 되며, 건강과 인류의 불후성을 보호해 주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충성, 의존성, 확신, 신뢰, 사랑, 그리고 인간에 대한 충절은 덕이 있는 여성과, 남자다운 남성의 명예에 깊은 관계를 맺어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의 교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라"(야고보서 1:27, 고리와 성약 59: 9)

고귀한 인격의 근본은 온전입니다. 개인에게 있어서와 마

찬가지로 국가의 세력은 이러한 덕에 의해서 평가됨 됩니다. 어떠한 국가이든, 위임받은 관리들이 사리사욕만을 채우기 위해 유리한 입법을 한다던가, 인사 문제를 개인에게 유리하게 하여 공무수행에 지장을 초래시킨다면, 혹은 위조나 협잡이나 사기행위로 국가 재산을 도적질 한다거나, 대중이 위탁한 공무를 그릇되게 수행한다면, 그 나라는 크게 번성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성실한 의도인 정직은 참으로 위대하게 될 일국의 지도자들의 인격을 특징짓게 됩니다.

조지 워싱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바라고 있는바는, 나도 덕과 확신을 가지므로서 내가 가장 부럽다고 생각하는 것 — 정직한 사람의 인격 — 을 무엇이나 전부 간직할 수 있었으면 하는 것이다"

이것은 워싱턴의 훌륭한 지성이며 그만큼 그의 인격을 보여준 말이었습니다. 이러한 그의 품격은 13개 지역의 재래 시민지가 종주국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려고 결의했던 시기에, 그것을 수습할 수 있는 적합한 지도자로 선출되게 하였던 것입니다. 우리 나라의 국부인 그를 진심으로 예찬하는 이러한 찬사가 있습니다.

"말씀씨 좋은 웅변가들과 재주있는 고안가나, 혁명적인 격렬한 애국자들 틈에서 그가 자태를 보였을 때, 겸양하고, 온건한 그의 언설은 그의 우수성을 은연중에 들어낼 수 있었던 것이다. 그는 인격자로서의 그 본성에 따라 단번에 지도자가 될 수 있으리라는 것을 예감하였다"

우리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회원들은 사랑하는 이 나라의 국민으로서 올바른 남녀의 인격과 더할나위 없는 명예로 공직에 선출될 것을 인식하기 위해 우리의 역량을 경

주합니다. 그리하면 그 안에 거하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정직하며, 진실하며 순결하며, 인자하며 유덕하고, 만민에게 선함을 하도록 가르칠 수 있을 것입니다(신앙개조 13조 참조)

그러한 이상을 소중히 여기므로서 우리는 시인 톱펠토의 시귀에 우리의 마음을 속삭여 줄 수 있을 것입니다:

"항해하는 너

오, 나라의 배여

억세고 위대하거라!

온갖 공포와

온갖 훗날의 희망을 지냈기에

네게 속한 인류는 숨가쁘게

네 운명에 매달리고 있구나!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회원들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회복된 복음을 전도하면서 아마 다음과 같은 구세주의 교훈을 기억할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너희 빛을 사람앞에 비취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마태복음 5:14, 16) 이러한 책임을 우리 스스로가 자각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겸손하게 기도하는 바입니다. 아-멘

# "성도의 길"

고 김호직 장로

성도로서 가추어야 할 일 가운데 각별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의 진실성입니다. 성도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진실하여야 합니다.

진실성을 잊었을 때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잃은 것입니다. 나와 남을 속이지 않는 사람만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진실한 사람은 귀여움을 받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도 귀여움을 받는 것입니다. 비교적 진실해서는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진실하여야 합니다.



오늘날과 같이 호박한 세상에서 허위 가식이 없이 참으로 진실되어 지기는 꺾으나 힘든 일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진실해 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 없이는 있을 수 없는 일 일 것입니다.

오! 저희들로 하여금 진실되게 하옵소서 조석으로 올리는 기도 가운데 꼭 넣어야 할 것입니다.

해의로 돌아 다니는 가운데 더욱 느껴지는 것은 우리 한국은 금수강산 산수 좋고 인물 잘났는데 꼭 한가지 부족한 것은 국민들의 진실성입니다. 허위 가식, 중상, 모략이 갈수록 늘어가고 건설을 애써 해 나가는 동안에 한 구렁이가 비고 무너져 가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 도의심이 좀먹어 가는 것 같습니다. 학교가 서고 공장이 늘어간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도의심은 날토 떠러져 가고 살인, 강도, 절도, 사기꾼이 우글 거리는 거리는 나다니기가 싫습니다. 이러한 실정을 외국인도 안다면 우리나라를 동정할 생각은 안 날 것입니다. 남의 동정을 얻기 위해서 진실해 지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도 남과 같이 잘 살기 위하여 국토재건을 위하여 진실해 지자는 것입니다.

친애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얼마 안되는 성도지마는 우리 만이라도 이 나라 이 백성을 위하여 절대적으로 진실해져서 우리가 올리는 기도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들어주실 수 있도록 합시다.

진실을 일상생활에 나타내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약속 시간을 절대적 엄수할 것, 말은바 책임을 완수할 것 등등 우리의 상식으로 판단하여 양심의 지휘에 따르면 우리는 다 진실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진실한 사람은 의로운 사람입니다. 의로운 사람이 대단히 부족된 이 세상에서 우리 말일성도의 형제 자매들은 다른 나라에서와 마찬가지로 참으로 진실해져서 다 믿음직한 일꾼들이 되어서 조국 재건에 이바지 합시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드립니다.  
아-덴 1959.8.21

# 고 김호직 장노를 추모 하면서

지방부장 정 대 관

김장노님의 제 5주기를 맞아 장노님을 사모하는 정 누릴  
길 없으며 님이 저희에게 남기시고 가신 말씀들 되새겨 보고  
싶어서 돌아가시기 얼마전에 마지막으로 — 뜻하지 않았으나  
마지막 글이 된 —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재하면서 고결하시  
던 일생을 간단히 더듬어서 우리의 신앙이 새로워 지고 님이  
바라시던 뜻을 이어받게 되었으면 하는 마음 숨길 수 없다.

1905년 4월 16일 평북 벽동의 한 빈한한 가정에서 태어  
나시어 어떻게 하면 우리 민족이 잘 살 수 있을까 하는 일념  
에서 수원 고등 농림학교를 거쳐 일본 동북대학 이학부를 졸  
업하시고 정부 수립후 제 1차 도미 유학생으로 코넬 대학원  
에서 2년반 영양학을 전공하시어 이학박사 학위를 획득하셨  
다. 학위를 받으신 "콩의 생장 촉진소"에 관한 논문은 세계  
생물학계에 커다란 센세이션을 이트켜 한국의 학술계의 위  
풍을 세계에 떨치셨다.

그는 19세기 부터 교단에서시어 후배 양성에 힘쓰셨는데  
전주 대구등지에서 교사로 봉직 하였고 숙명, 이화 여자 전  
문학교에서 교수 생활을 하였고 숙명여전 교장직을 사임하실  
때 받으신 퇴직금으로 현 묘소가 있는 곳을 매입하시어 크리  
스찬 끼리 모여사는 이상촌 건설의 꿈을 가지시기도 하셨습니다.  
연세대학 대학원, 서울 대학 대학원에서 강의를 하였고  
1954년 10월 수산대학장에 취임하시어 백여명에 불과하던 학  
생수를 가진 보잘 것 없는 대학을 800여명의 학생이 모인 홀

통한 대학으로 만들어 놓으셨다. 1955년 3월 10일 문교부 차관으로 부름을 받아 관직에서도 청렴결백한 성품으로 우리나라 문교행정에 크게 이바지 하셨다. 1957년 홍익대학장을 역임하시고 1958년 건국대학의 전신 정치대학을 종합대학으로 만드시는데 크게 힘쓰고 축산대학장이 되시어 학생들로 하여금 돈을 벌어가면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시고 저 동분서주하셨다. 사도님의 말씀에 의하면 19세의 나이 어린 선생님께서 절부터 가난하여 재질이 있으면서도 학업을 계속 못하는 학생에게 봉급을 털어 주시기 일수였고 이러한 일은 이 세상을 떠나시기 까지 계속되어 사도님은 김장노님의 월급이 얼마나 되는줄 모르고 살아오셨다 한다.

소년시절에 동리의 호떡 집에서 김이 나는 호떡이 먹고 싶어도 사먹을 수 없어서 마음에 한이 되셔서 문교부 차관이란 직책을 가지시면서도 길가의 호떡이나 빈대떡을 거리낌 없이 사잡수시고 백홥짜리 극수대접을 받은 회원이 많아 너그럽고 서민적인 품위있는 인격에 감화받지 않은 사람이 없으리라 생각 한다.

해방후에는 수원 농업 시험장으로 농업 개량원이 창설되자 부총제로 1948년도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 이사회 총회 한국 대표로 출석하여 일제 착취의 온상이었던 한국의 농업실정을 소개하여 FAO의 원조를 획득하는데 공을 세우셨고 유네스코 한국대표 국방부 고문 전시장병의 병식 간소화 보건사회부 전시 생활 개선 위원회 분과 위원장, 상공부 정책위원 문교부 대학 운영위원회 위원, 기독교 농촌 재건위원회 위원, 이 화여고 이사장등 허다한 사회 공직을 통해서 나라에 이바지 하셨고 1959년<sup>8월</sup> 인도에 초청강사로 다녀 오시고 여독을 풀날이 없으셨다. 서울시 교육위원 부위원장직을 사임, 평의원으로 계실 때 1959.8.29 각급학교 잡비금 증수 허가여부로 격론이



벌어지고 있는 <sup>강에서</sup> 회교일혈로 쓸어지시고 삼일간의 혼수 상태에서 한마디의 말씀도 없이 8월 31일 새벽 고요히 숨을 거두시어 할 일 많은 이 땅을 떠나 우리 성도들을 고아처럼 버려두셨다. 김장노님께 오늘날과 같은 교회 발전상을 보여 드리고 싶은 마음 달랠 길이 없다.

님의 종교 생활을 도리켜 보건데 소년시절 부터 인생의 진리를 추구하여 종교에 전념하셨으니 한 때는 천도교 불교에서 인생의 오의를 깨달으려 하였고 1939년 부터 1951년 까지 장노교회에 가입 장노로서 신앙생활을 계속해 오셨으나 신앙양심에 만족을 주지 못하던 차 1949년 두가지 목적을 가지고 도미하셨다. 그 하나는 영양학을 더욱 연구하는 것이고 둘째는 양심을 충족시켜줄만한 참된 종교를 찾는 것이었다.

코넬대학원에서 올리버. 웨이먼이라는 모트몬의 생활 태도와 신앙생활에 감화되어 뉴욕주 이타카와드에서 돈.우드와 그의 동반자 벌.보우만 형제에게 복음공부를 하여 죠셉 스미스와 올리버 카우드리가 칙례를 받은 사스케하나 강에서 1951년 7월 29일 죠셉 에이. 다이 장노에게서 칙례받고 돈.우드 장노에게서 안수례를 받으시고 그해 8월 2일 집사의 아론신권을 부여받고 8월 26일 제사로 승임 되시고 1953년 5월 27일 부산에서 스펜서.멧슨군목에게서 멜키세덱 신권을 부여받으시고 1955년 8월 2일 죠셉 필딩 스미스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으로 부터 한국 지방부장으로 성임 되시어 한국 모트몬의 첫 사람이요 기초를 반석위에 세우셨다. 서스케하나 강에서 칙례받으시고 올라오실제 "네 양을 먹이라"는 영의 음성을 들으시고 귀국하시자마자 가족을 위시하여 많은 청년들을 회개하여 주께 돌아오게 하시고 1959년 봄 난관을 극복하시어 한국에 선교사를 맞아 드리게

된것도 김장노님의 개인초청의 한 피땀나는 노력이였다.

아무리 바쁘시고 힘들셔도 주일학교 교사로서 우리에게 영의 양식을 주시기를 잊지않으셨다. 주일학교 교사로서 한 토막의 일화를 소개하겠다.

하늘의 세도 호령 한마디로 떨어뜨릴 권세가 있다는 자유당 시절의 이박사가 경무대에서 김장노를 급히 불렀다. 마침 일요일이기에 대통령 비서는 사방으로 여러 시간을 허비하여 겨우 중앙청 앞 해무청 자리의 건물 속에서 수십명의 청년을 놓고 가르치시는 김장노를 발견하여 급히 경무대로 들어가자고 하였다. 그러나 비서를 먼저 보내고 공과를 마치신 다음에 대통령 앞에 서니 왜 이렇게 늦었느냐고 대성일갈 호령하는 것을 주일학교 교사여서 공부를 다 마치고 오느라 늦었다고 변명하자 노대통령은 기쁨을 감추지 못한채 등을 쓰다듬으며 잘했다 잘했다를 연발했다 한다. 하나님을 두려워 할 줄 알고 하나님을 섬길 줄 아는 이의 행동이 바로 이러한 것이 아닌가 싶다. 지금도 나의 귀에는 김장노님의 말씀이 쟁쟁하다. 첫째도 교회요, 둘째도 교회요, 셋째도 교회, 그리고 넷째에 가정이요 국가사회다 하셨고 또 인도에서 몸이 불편하시어 죽음을 생각하실 때 제일 처음 걱정이 교회일이였다 하신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들 걱정하신 김장노님의 뜻을 받들어 남기고 가신 일을 다같이 힘을 뚫아 수행하지 않으시렵니까? 이 부족한 글 삼가 김장노님을 그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아-멘

# "당신의 의문"



해답자: 조셉 필당 스미스  
열두 사도회 회장

## — 질 문 —

지금까지 십일조의 지불에 관한 많은 설명을 들어왔지만 나는 정확히 말<sup>못하고</sup>지 않습니다. 손에 넣을 수 있는 모든 책들을 읽어 보았지만 아직 똑바른 설명을 보지 못했습니다. 당신께서 농부나 판매원이나 이발사 혹은 다른 종류의 특별한 경우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들의 십일조를 지불해야만 할 것인가를 예를 들어서 말<sup>씀해</sup>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답" 주님께서 십일조의 법 혹은 십분 세 보다 더 간단하고 알기 쉬운 계<sup>계</sup>시나 계<sup>계</sup>명을 인류에게 주신적이 없습니다. 태초로부터 주의 백성들은 일치된 이 법으로서의 율법을 지켜 왔습니다. 그것이 말하고 자 하는 바인데 그들은 모든 물건을 공동으로 소유 하였고 또한 그들 가운데는 가난한 자가 없습니다.

말일성도는 율리암 다불유, 펄프스 장노의 놀라운 찬송가를 자주 불러 왔습니다. 그 첫 구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지상은 한 때 나<sup>원</sup>이였다네.

그의 모든 영광도 공동으로 소유했었고

사람들은 아담, 온다<sup>아</sup>이런 안에서 거룩한 민족으로 살<sup>아</sup>었다네"

그러나 때가 변하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던 것 대신 인간은 이기적이 되고 인류에게는 완전한 상태가 상실되었

입니다. 홍수 후에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불러 그에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도록 주셨습니다. 그리고 홍수가 끝난지 얼마후 십일조의 법이 행해지도록 알려진 것 같습니다. 구약에서는 단 몇구절 안에 몇백년이 지나가는 의심할 수 없는 사실인 창세기에도 이에 관하여 별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다.

야곱이 그의 형의 노엽으로 부터 도망하여 베델에 왔을 때 그는 맹세하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편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십분의 일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창세기 28:20-22).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약속된 땅으로 왔을 때 주님께서 계시로 그들에게 십일조의 율법을 설명하셨습니다. 당신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 민족은 땅을 경작하는 사람과 소와 양을 치는 목자들이 있었다. 그들이 약속된 땅에 도착한 후 그들에게 그의 율법이 선언되고 이 율법의 조항이 기술되었고 그들은 이를 깨트리지 않았습니다.

만일 어느 사람이 십분의 일의 소나 양이나 말이나 무엇이든지 면세하려고 하면 그는 벌을 받았습니다.

기록된바 "사람이 그 십분 일을 속하려고 그것에 오분 일을 더할 것이요 소나 양의 십분 일을 막대기 아래로 통과 하는것의 열째 마다 여호와의 거룩한 것이 되리니 그 우열을 교제 하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들다 거룩하리니 속하지 못하리라(레위기 27:31-33)

이로부터 십분의 법은 엄격하였으며 더나가 모든 소유물도

십일조를 냈으며 그 십분의 일은 주님의 것이었습니다. 때가 지남에 따라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하고 있는 것과 같이 이스라엘도 이는 주님의 계명이며 그는 교회 회원이 정직하게 십일조를 지불하기를 기대하시고 계시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내가 받은 많은 편지들 가운데서 상징적인 의미로 행하고 있으므로 모퉁이 돌을 깎아내고 있으며 또한 그러한 수단을 찾아 내려고 모색하는 동시에 십일조 지불 문제에 있어서 그들 양심을 안위하려고 하는 많은 회원이 있다는 결론에 들어가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쓰여진 기록으로부터 우리는 십일조의 지불은 단순한 문제임을 발견합니다. 우리들 가운데 아무리 무식한 자 일지라도 일불의 십분의 일이 얼마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임금이나 소득이나 어떤 재원으로부터 입수되든지 우리 수입의 십분의 일은 주님에게 속한 것입니다.

어떠한 정직한 십일조 지불자든지 십일조 지불에 있어 모퉁이 돌을 깎기 노력하는 사람의 정신적인 혼란 상태를 이해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말해 봅시다. 어떠한 한 사람이 소득이나 임금이나 배당금이었던지 혹은 무엇이든지에서의 수입을 한 만원이나 받았다고 치면 그 금액의 십분의 일은 십일조로 속하는 것입니다.

고용인으로 있는 어떤 사람들은 그 수입에서는 면세가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전액을 절약한다고 말함으로서 그들 자신을 정당화시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직 자신의 명예만을 위해서 십일조를 지불해서는 안 됩니다.

인간들이 취급하지도 않았고 보지도 안한 사실에서는 그 십분의 일은 내지 않는다고 지적된 일도 없습니다.

불행하게도 그와같은 견해를 가졌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말라기에게 계시로 십분의 세에 관하여 말씀하신 것은 옛시대에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교회의 회원에게도 바로 진리이며 적용됩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 하겠느냐 그러나 너는 나의 것을 도적질 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 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십일조와 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와 나의 것을 도적질 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십일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붓지 아니하나 보라"(말라기 3: 8-10)

십일조의 지불은 농부나 목축업자나 이발사 혹은 고용으로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누구에게나 복잡한 제도는 아니다. 오늘날 정부의 법령으로도 봉급자나 어떤 직업일지라도 상관 없이 그 자신의 수입에 세가 있습니다. 상점주인에게는 그의 물건의 목록표가 있습니다. 그는 그의 지출이 무슨 원천으로부터 나왔는지를 바로 알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그는 신중한 계산의 방법을 통하여 무슨 이익이 있었다는 것을 결정할 것이고 또 지출로부터 충분한 무슨 수익이 왔었는가를 알게 될 것이다.

물론 이는 신중한 장부보존의 조직을 필요로 할 것입니다.

정부에 의한 세 제도<sup>도</sup> 모든 상인, 농부, 판매인, 이발사 혹은 무슨 직업일지라도 지출과 수입에 있어 정확한 지식을 갖는데 도움이 됩니다.

급료에 있어<sup>서</sup> 어느 규정된 액수를 받는 봉급자<sup>도</sup> 신성한 율법에 따라 실분지 세를 지불해야 할 것입니다.

# “권후 소식”

1955년 8월 초 죠셉 필딩 스미스 12사도 정원희 회장이 이 땅을 하나님의 복음을 전도하기 위해 봉납하신 이래 수년동안 하나님의 참 복음을 받아드린 이 나라의 성도들은 한결같이 원하는 바가 있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이 살던 건물을 비싸게 사거나 빌려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송할 수 있는 목적으로 세워져 봉납된 하나님의 집을 가졌으면 했던 것이다. 즉 말일성도는 모트몬의 교회를 갖는 것이었다. 그 꿈이 이제 실현되려고 하는 것이다.

이 계획이 처음 알려졌을 때 다른 사람들은 코웃음을 쳤던 것이다. 아니 소수의 성도들까지도 이 계획의 실천이 희박함을 말했던 것이다. 물론 우리네 일반 사회에서는 이러한 계획을 상상할 수도 없으며 이렇게 말하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 일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계획과 실천은 하나님<sup>나</sup>의 성도들에게만 생각할 수 있는 일이다.

1963년 7월 14일 선교부장님을 위시하여 노무 선교사 감독 루수 형제와, 노무 선교사들과 서울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모인 가운데 용두등 현장에서 기공식이 거행되어 공사는 착착 진행되어 지금현재 지붕을 다 올린 정도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유감스러운 것은 일부 성도들 가운데는 이 나라에 하나님의 집이 건축되어 가고 있으며 이 건축 계획에 우리들이 어떻게 협조해야 한다는 것조차 잊어버리고 있음을 알 때 5,6월의 댕약 빛 아래서 땀을 흘려가며 일하는 노무 선교사님들의 수고를 위로해주고 한삽의 모래를 옮겨줄만한 신앙이 우리에게 없다는 말인가! 성도들이여 다같이 회개하고 하나님 왕국 건설의 노래를 들으려 가지 않으려는지!

### — 노무 선교사의 간증 —

삼복이 세번이면 구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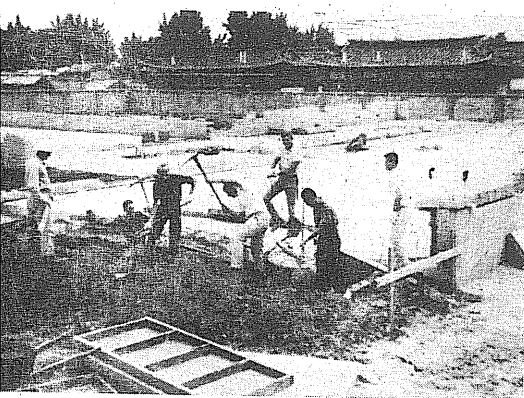
작년의 삼복 더위는 삼과 더불어 금년의 삼복 더위를 부력과 더불어 보내고 보니 삼복 더위의 맛도 맛이려니와 노동의 맛도 보통 맛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내년의 삼복을 한번 더 겪는 것으로 저희들의 노무 선교사 생활도 끝이려는 것을 생각하니 벌써 1년이란 기간 동안을 일하여 왔나 하는 느낌에 감회 깊어집니다. 그 동안 저희 모두가 아무런 사고 없이 정신적 육체적으로 건강하게 일에 종사할 수 있었다는 것은 모두가 하나님과 여러 형제 자매님들의 은혜인 것을 알며 마음깊이 기도로써 감사드립니다.



또한 서울 여러 지부의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일할 때 저희 자신도 모를 힘이 용솨음 칠뿐 아니라 일하는 보람됨이 만족할 때 가슴 흐뭇 합니다.

앞으로 남은 기일도 모든 노력과 정성으로 하루빨리 교회가 완성되어 아름다운 건물 속에서 예배 볼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끝으로 여러 형제 자매님들의 아낌없는 도움을 바라며 내내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노무 선교사



또한 이번 기획을 통하여 저희들이 일하여 오고 생각하던 것을 다소나마 여러 회원들 앞에 피력할 수 있음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기공후 일년이 지난 지금 이곳 용두동 현장에는 아직 완공은 못보았지만 앞으로 몇달후면 완공을 볼 수 있는 건물이 순조로이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기초 봉크리트와 부력쌓는 일이 얼마 있으면 곧 끝날 것이며 지붕 또한 며칠 후면 완전히 덮이여 이것이 끝나는 대로 내부장치로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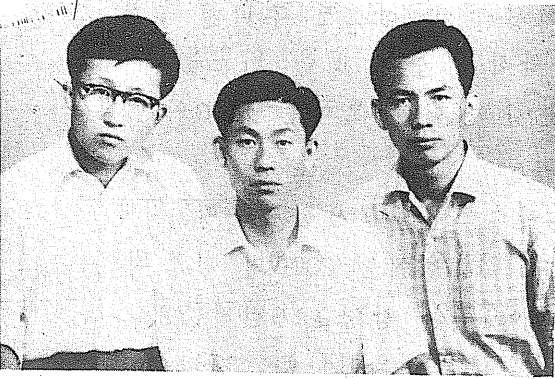
오늘 하루도 일한 보람으로 건물이 또 변하였습니다. 이렇게 우리 자신들의 손으로 하루 하루 변하여 가는 건물을 바라 보는 기쁨이야말로 하루의 피로를 풀고 내일의 힘을 불려 일으키는 유일한 나이 되었습니다.

작년 7월 저희들이 노무 선고사로 임명 받은후 망치질, 톱질 한번 제대로 못하여본 자신들이 교회 건축에 과연 무엇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두려움과 암담한 심정 뿐이었습니다.

삼질 몇번에 손에 물집이 생기고 조금 지나친 일을 하고 나면 코피를 쏟던 신체들이 이제는 강철에 비할만큼 단단하여지고 웅만한 일이면 자신을 가질만큼 기술도 숙달되었습니다. 고된 일도 이제는 고비를 넘기고 완공의 날이 눈앞에 보입니다.

홀통한 감독을 모시고 일할 수 있는 기쁨, 어지러운 사회를 떠나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교회를 건축하고 있다는 기쁨, 저희들은 기쁘기만 합니다.

욕심을 바라보는 연노한 나이에 이역 땅에서 교회 건축을 위하여 온 정력을 기울이고 계신 투스 형제와 딘 장노, 조금의 틈을 내어 이곳에와 일을 돕고 가는 미군 형제들,



## “내 지부 자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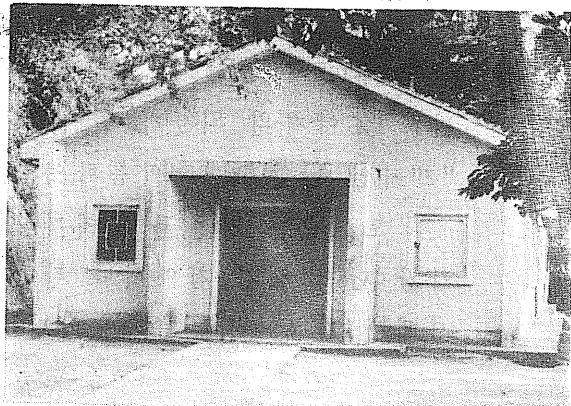
서울 삼청지부 편

— 유춘재 —

자람은 누구나 하되 그 자람의 합당한 여부가 문제가 된다. 기쁜 마음으로 자람의 일장을 쓰자니 성도의 벗 창간과 아울러 너두나 벽찬 의열과 영광스러움과 행복감을 느낀다. 한편, 거짓없이 한국의 모든 지부의 성도들에게 드림에 보다 충실하고 세세하게 또한 사랑가운데 깊은 이해와 편달을 바라며 이 기회를 통하여 개개인이 발전있기를 바란다.

1. 지리적 조건에서.

하늘이 있으니 땅이 있다. 맹독적이 아니기에 부족이나 거리나 시간이 변명이 될 수 없고 그것으로 끝날 수는 없다.



그러기에 현재까지 근 800여명이 이 멀고도 후미진 곳을 찾고 찾고 배우고 회원이 되었다. 북악산의 우뚝 솟은 위용을 북쪽에 배경삼고 중앙청 옆길로 15분간 걸어야 보이는 1200여평의 한식 가옥.

이름하여 팔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삼청지부가 의미 있게도 절을 등대고 있는 것이다. 주위에는 2000여 평토의 숲으로 둘러 싸인 국립 삼청공원이 있는 삼청동 5번지(72-3596). 건평 300여평, 운동장, 등나무, 은행나무, 감나무, 가득찬 정원 높낮은 지면이 오히려 아늑한 분위기를 만들고 크고 작은 나무 그림자가 따를 제공한다.

옛날엔 판서, 정승만 살던곳. 공기 좋고 물 좋고 마음 좋은 곳이라 삼청. 결국 아름다운 자연은 선한 인간을 낳는다. 그러기에 자연을 사랑하는 착한 성도가 많은 것이 이상할 것은 하나도 없다.

## 2. 구도상에서.

7지부중에서도 구도적 배치가 가장 훌륭한 것은 어떨까? 문을 들어서면 오른쪽에 한식 가옥. 선교사 4분의 거실이며 식당, 방 두개중 하나는 복음 공부에, 하나는 모든 지부가 함께 사용하는 칠판실, 여름방학 한 대낮은 선교사와, 성도들의 장기 바둑 국수전과 탁구시합에 다정한 곳이다. 왼쪽은 아담한 외딴채 한식 가옥. 이곳의 우리 지부의 명승지요 근원이다. 30여개의 의자가 들어 차고 3개의 긴 책상으로 꾸며진 "까자인 남향 집 — 이름하여 명예로운 도서관과 지부장실.

도서관은 전통과 명예가 있고 봉사와 발전의 상징이다. 가장 먼저 생긴 점에서도나 가장 효과있고 유용하게 운영되는 점에서 결코 빼놓을 수 없다. 이곳의 의자는 편할 날이 없다.

정식으로 일요일, 목요일 외엔 아침 아홉시부터 개관하여 저녁 10시에 끝내고 돌아가는 모트뭇의 젊은 선각자들이 작년 만해도 거의 38명이 이 자리에서 공부하여 아주 좋은 입학술을 냈으며 그 가운데서 2명의 형제가 화공과와 전기과에서 톱을 차지했다. 진실로 성도를 위한 곳. 여기는 누구나 들어오면 공부하게 되어있다. 덕분에 작년 겨울엔 지부용 연료를 6통이나 써서 지부에선 두달이나 다소 좁게 지냈다. 기금은 스스로 도관증을 발급하여 연료를 위한 기금을 4,500 원이나 모은 모양이다. 회원, 비회원의 구별 없이 돕고 배우고 가르치는 모습. 여가를 이용하여 지부의 청소는 도맡아 하며 가끔 운동경기로 즐기는 씩씩함은 앞날에 밝은 지성이 되리라.

도서 수집을 3차례 해 놓은 것이 좋은 책들은 다소 함흥차사가 되었고 그래도 책장에 가득이 38여권의 영어 원서와 일본어 책, 200여권의 책들이 즐비하게 꽂히고 열람을 위하여 준비되고 있다.

특히 중요하고 자랑스러운 것은 지부장실, 어느 지부들가도 우리 지부장실 처럼 적은 곳은 못보았다. 그러나, 장소는 작아도 하도록 나오는 일은 가장 들것이다. 4명이면 이미 만원사레(?)에 책상 캐비닛에 겹쳐 올려진 선반.

그래도 빈곳이 하나도 없다. 필요보고 서류함을 중심으로 한칸짜리 마루방은 각종 서류, 책, 물품에 늘려있다.

꽤 돌린 세계의 배구 우승컵, 응원컵, 연식 야구 우승컵——이 컵을 타고는 너무 좋아서 울었다——2자 두께로 첩첩이 싸놓은 5,6년된 기록 서류(어느 지부에 이렇게 오래 것이 있으랴?) 기록부가 가즈런히 꽂혀 있고 7개 실함은 편지류, 공문서 철, 지부교육, 상향회...등 조직별로 나뉘어 사용되

며 삼청 지부라고 새겨진 인장들로 찍혀진 공문서가 차 있다. 벽에는 고 김호직 박사께서 소장하시던 시원한 바다풍경화와 여러 종류의 차트와 보고서가 보기 쉽게 꽂혀 있다. 선반문을 열자 이것도 자랑거리.

아마도 삼청지부의 기록부는 비교적 정확하리라.

52권의 지부용 찬송가. 잡지(이라 등) 공과책, 교재 등등. 지방부 발행관 및 한권에 800원이상되는 영어 원서가 무려 26권이나 보기에도 아름답게 가르려니 꽂혀있다. 역원과 교사를 위한 지부장실 도서관은 가장 훌륭하리라. 서토 돌려가며 보는 모습은 가장 흐뭇한 정경중의 하나.

녹음기 사용이 가장 자유롭기에 대관 3개의 띠의 악 함께 무용곡, 관현악곡, 테너집, 폴카곡, 민요 등 무려 13절에 150여곡의 전축관. 그 중에서도 민속 무용 판 2개는 도트몬 테 버나를 합창곡(2개)과 함께 한국 유일의 무용판이 있다.

또한 있어도 알지 못하는(3년전에) 민속무용이 삼청지부 밖에 앓던 것이 선구자로서 주저하던 몇 사람들의 큰 이해를 받은 지금은 지방부 상향회에서 매달 빼놓을 수 없을 정도로 되어 급기야는 판의 수명이 다하기 전에 녹음 테이프에 기록하여 각 지부에 돌렸다. 전축 소리 중기도 가장일 것이다.

민속무용하면 "대 삼청지부(?)"라는 별명도 있듯이 음악, 웅변, 연극의 역사는 극히 훌륭하였었다. 체육은 잘하는 것은 기때 하나 못하는 것도 또한 기때하다. 우승컵이 3개니 가히 짐작이 되리라. 각종 운동기구도 처도 제일 많은 종류와 개수를 소유하였다.

### 3. 조화된 분위기로.

층계를 따라 계시관을 따라 올라 가기만 하면 개나리,

등나무, 그늘진 흰색 양식의 예배당을 본다. 어느 지부가 이렇듯 아늑하냐? 다른 지부를 다 돌아다녀 보아도 예배당만은 제일 훌륭하다. 120여개의 의자가 좌우 5개로 줄지어 있고, 단상 위엔 탁자와 책상. 창문엔 톱새 커튼. 16개의 형광등이 비칠 때 우리는 마음을 고쳐앉아 경건하고 거룩한 집회로 들어간다. 좋은 신발장이기에 애꿎게 한달을 주기로 신발을 잃지 만 신 벌는 곳은 깨끗해 진다. 그러기에 상향회 활동이던 땀뿔러 70여개의 의자가 두겹, 세겹되고 갖가지 재주덩이가 기업을 포함한다. 웃는 가운데 선행진다.

7월 그것도 어느 일요일 밤 아주 못된 인간이 그렇듯 소리 좋던 야마하 올겐의 리드를 빼간후로는 우리의 찬송은 힘이 없었고 덕분에 올겐의 필요성을 알게 되었다. 나온김에 합창대의 자랑도 하자.

정대관 지방부장의 특별한 여가들 줄라가며 틈틈이 배운 것이 이미 100여곡. 성찬식, 더욱이 지방부 행사에는 참여 않을 적이 없으니 얼마나 기꺼운가?

도여서 연습하고 신채원 지부장의 사비를 털어 점심도 먹고.... 이것이 생활의 모트몬이다. 아마도 테버너를 합창대 같이 되리라.

각반 분반이 수월토록 반이 충분한 것을 감사한다. 전부 합해 8개. 의자 총수가 175개. 형광등이 24개. 책상 6개. 킬 판 5개. 탁자 1개....필요한 것이라면 다 구입해 놓는다.

뒷면의 아홉개의 사진틀엔 1대 죠셉 스미스 대관장부터 9대 대비도 오. 멕케이 대관장 까지의 사진이다. 얼마나 성도들에게 말없는 교훈이 되는지?

매달 보기 싫은 글씨나마 그달의 생일과 칩레일을 가진 성도들의 이름을 축복해 주는 습관은 또한 여기서 찾아볼 수 있다.

4. 기록면에서.

1957년 서울 중앙지부가 태어난 이래 급증하는 지부 회원과 쟁쟁한 지도자들이 불어나자 급기야 주일학교는 120명 선으로 오르고, 상향회는 80명선, 상호부조회는 20명선 등등 신권 소유자의 확보로 1959년 9월 초에 처음으로 첫 동생격인 서부지부를 서대문구 충정로로 분가 시키고, 이어서 4년 5개월 만에 다시 청운지부를 두째 동생으로 지금의 선교부로 분가시키니 바로 1963년 2월 10일이다. 그 동안 1962. 7. 1일을 기해 북극동 선교부로 속하던 한국 지방부가 독자적인 한국 선교부로 승급되는 기쁨을 갖고 선교부장으로 계일이. 카 선교부장이 오셨다(자세한 것은 차후 재료를 수집하여 소개하겠음)

이 때부터 그동안 명실공히 서울 중앙지부로서 활동해 오던 것을 서울 삼청지부로 개명하고 현 지방부장 정대판 형제가 애쓰셔서 가다듬고 현 지부장 신채원 형제가 후임이 되셔서 지금에 이른 것이다.

1960년 부서의 지부상황 변동을 보자면 도표(1)에서와 같이 눈으로 안보이던 발전이 실증된다.

비교적 정확을 기하여 매사에 전념하고 심혈을 기울여 일하고 닦아오는 우리의 앞날은 광명이 있으라니 모두 손잡고 일어나자. 그리고 손발을 움직여 일하자!

1964년 1월 31일 현재(조사기간이 짧았음에도 7개월 전 통계로 하였음)로 각 부분별 도표는 다음과 같다. (회원 상황표(가) 도표 2) (회원 상황표(나)도표 3) (회원 변동표 도표 4—1964. 8. 18일 현재) 도표—1(지부 회원표)에서 처럼 8월의 총 회원수 339명(남자 188, 여자 141명) 중에서 신권 소유자가 장노 9, 제사 13, 교사 10, 집사 40, 남자 회원 115명, 여자 회원 138명, 해외로 간 사람 1, 9세 미만인 3



도표~C 회원상향표(가) 1964.1.30 현재

년	생년월일	필리	
1900 ~ 1930	13	/	
30 ~ 35	20		
35 ~ 40	68		
40 ~ 45	150		
45 ~ 50	73		
50 ~ 55	3		
~ 60	1		
1-30 ~ 64	2		
	330		330

도표~D 회원상향표 1964.1.30 현재

월	생년	필리
1	31 명	17 명
2	24 "	26 "
3	29 "	17 "
4	20 "	26 "
5	27 "	40 "
6	19 "	24 "
7	25 "	21 "
8	39 "	29 "
9	27 "	35 "
10	35 "	31 "
11	26 "	29 "
12	28 "	35 "
합계	330	

도표~E 회원변동표 1964.1.1 ~ 8.18

	들어온 회원		이전된 회원	
	남	녀	남	녀
필리 (25)	13	12	X	X
미전 (4)	2	2	8	8
합 (29)	15	14	16	

때므로 되었고, 앞으로 급격히 상승될 것이다(\* 기타 자세한 것은 추후 기획있는대로 발표할 것임)

1964년도 상항표

연월	21세이상		21세이하		합계		해외		9세이하		취업		합계		잠재자			
	P	T	P	T	D	M	F	M	F	M	F	M	F	M	F	M	F	
1	9	3	19	31	6	5	18	29	2	1	0	3	105	153	330	2	2	4
2	7	4	19	30	6	5	19	30	2	1	0	3	106	146	321	0	0	0
3	7	5	19	31	7	3	19	29	1	0	0	0	104	149	325	2	3	5
4	8	7	17	32	6	3	19	28	1	0	0	0	103	151	329	3	2	5
5	8	7	17	31	6	3	20	29	1	0	0	0	99	162	330	1	0	1
6	8	7	17	31	6	3	20	29	1	.	.	.	100	163	331	1	1	2
7	8	9	17	31	6	3	20	29	1	.	.	.	104	185	335	1	3	4
8	7	7	17	31	6	3	23	32	1	0	0	3	115	137	339	3	1	4

지부상항변동표

연월	21세이상		21세이하		합계		해외		9세이하		취업		합계		
	P	T	P	T	D	M	F	M	F	M	F	M	F		
1960	17	10	12	39	3	8	30	41	1	0	2	4	153	188	442
1963	9	3	16	29	5	5	16	26	2	1	0	3	106	151	325



6. 좋은 고기는 좋은 지부에.

끝으로 인제 자람으로 매듭을 짓자.

1957년 이때 초기의 지방부장이던 험 계일 이. 카 선교부장, 지방부장이던 타일러, 부라운, 와델, 보래드샤, 아담스 장노는 삼청지부(중앙지부)에서 오래 봉사하다가 지방부장이 되신분들이며 지금의 정대관 지방부장도 교회 초기와 63, 2월 부터 7월 까지의 지부장으로 계셨다가 되셨고 또 직접 선교부로 간 죠지, 해리스 장로등 허다하다. 초기는 다음 기획에 미루더라도 현재의 지영달 21세 이하. 아론신권 평의원, 63-64년도 지방부 상향 회장단의 유춘재, 장혜자, 신원영, 형제 자매와 전의 서희철, 김광덕 같은배, 이금자 등 형제 자매와 한국을 다녀간 88명의 선교사중 53명이 근 800명의 회원을 만들고 이 자리를 거쳐갔다. 또한 5분의 지방부장 중 3분을 보내셨고 열두분의 지부장중 8명의 선교사 지부장이 일하시고 다녀갔다.

현재 지부장단의 신채원, 이충길, 천낙서, 오인용 형제님은 우리 지부의 큰골이며 아버지이다. 어느 지부보다도 자주 지부장단 회의를 통하여 모든 역원들을 이끌고 지도한다. 주일학교의 김동김, 이종권, 홍숙호, 조준영 형제및 10분의

교사, 상호향상회의 장세문, 고원용, 허완, 최경화 형제 및 윤유병, 최순자, 성양자, 김승휘 자매와 4분의 교사. 지부 교육 위원회의 유춘재 형제(내가 낱쓰니 웃읍지만), 지부 합창단의 주덕영형제, 건축 위원회의 장초 형제, 노무 선교사 김명웅 형제, 초등협회의 신원영, 정효금, 시간 선교사 천낙서, 서희철. 상호부조회의 최금춘 회장이하 여러분. 또한 물심양면으로 돌보아 주시는 워니, 존슨, 드릿지, 링기 장노에게 가장 크시고 축복된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모든 것은 정확하고 정직하게 쓰느라고 했으나 급한 준비였기에 부족한 점을 직송스럽게 생각합니다)

— \* — \* — \* — \* — \* —

—40 페이지에서의 계속—

3. 기타 사항에 충신토록 요청합니다.

- 1) 지부 상향회 조직은 완전히 하라.
- 2) 책임 한계를 명확히 알고 행하라.
- 3) 지부 상향회 지도자 총수는 18명임.
- 4) 임명된 상향회 지도자는 반드시 안수를 받으라.
- 5) 기도회, 역원회, 지부 전체 역원회, 지방부 전체 상향회 율례회에 반드시 참석하라.
- 6) 모임은 정한 시간에 시작하고 끝이라.
- 7) 보고서는 매달 초(5일이내)까지 보내라.

# M I A

(지방부 상향회)

새로운 희망과 의욕과 정열에 불타는 결실의 구월입니다. 구월은 상향회를 보다 새롭고, 풍성하게 만들어 줍니다.

시작이 훌륭해야 끝이 좋은 법입니다. 자신있고 차분한 땅을 만들어 상향회를 부쩍부쩍 키웁시다.

이에 상향회 기록의 준비와 사용 및 거짓없고 성실껏 기록한 가장 정확하고 충실하며 정돈되고 깨끗한 기록과 세세하고 일목요연하며 조리있고 누락되지 않은 기록을 위하여 좁은 지면을 이용하여 알려 드리오니 매달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여러 지부의 지도자 여러분과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가득하시기를 빌며 더우기 서기들께서 다음 사항을 특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상향회 기록부를 기일내에 완전히 할것.
- 가. 청남 청녀 기록부.
  - 1) 등록해야 할 회원
    - 가). 각 지부의 회원으로서 만 12세 부터 만 26세 까지의 남자 및 여자. (1964년 9월 1일 현재) — 정회원
    - 나) 만 12세 이하 및 만 26세 이상의 회원은 상향회 출석이 3개월간 충실한 사람만 기록한다 — 준회원
    - 다) 선교사들은 등록인수에서 뺀다.
    - 리) 만 12세 이상 만 26세 이하의 비회원(구도자)은 별도의 여분의 출석부에 완전 기록해 두되, 1달 (4주)동안 계속해서 상향회에 참석한 사람만 등록한다.

미) 만 12세 이하나 만 26세 이상의 비회원(구도자)은 1개월 이상 계속 참석한 사람에 한한다.

바) 연속 세번(3주)이하로 출석하는 비회원 및 타지부 회원으로 방문한 자는 등록치 않는다.

(단 지방부 역원으로 있는 지부 회원이 공적으로 결석 하였다면 출석 기재하여야 한다)

2. 이하의 사람으로 한달(4주)이상 계속 이유없이 불참하면 등록인수에서 삭제하라(그러므로 반드시 엽필토 기록해둘것)

가. 등록인수의 출석 및 출석율.

1) 출석은 각 반별(5분)토 기록부에 누락없이 기입해두고 남자는 청남 기록부에, 여자는 청녀 기록부에 매주마다 서기와 회장의 확인으로 명기할 것.

2) 우선 충실한 출석자 부터 1.2.3 등급으로 나누어 기재할 것.

3) 출석상항이 계속적으로 1년간 불량한자는 3등급이다.

4) 출석율(%)은 매달의 등록인수를 기준으로 등록자의 출석에 대한 %를 낸다.

5) 방문자. 첫번 방문 구도자 등은 제외한다.

나. 진학자 및 이전자와 추가등록자.

1) 타지부로 이전한 회원은 상향회에 관한 모든 기록을 세목별로 명기하여 그 지부로 보내주어야 한다(특히 청녀 시상카드는 중요하게 취급하라)

2) 중학교반(장미반)에 있던 회원이 3월에 진학으로 고등학교로 옮기는 8월말 까지는 장미반에 계속 참석하며 활동해야 한다.

3) 고등학교반(울계반)에 있던 3학년 학생들의 대학진학

및 졸업후에도 계속 8월말 까지 월계반에 참석 활동해야 한다.

4) 멀리 이전했으나 자가지부의 회원 기록에 있으면 빼 버리거나 삭제할 수 없다.

5) 장미반, 월계반에 해당되는 연령의 자매들의 등록이전은 엄밀히 하되 정확성을 기하여 2) 3)과 같이 해야한다.

기록을 옮기는 사람(진학자)은 별지에 3월에 각 지부 별로 따로 체크하고 기록하여 3월 초에 지방부 상향회 장단 기록에 보고할 것.

\*추가 등록자는 각 지부별 회원록, 기타 기록부에 기일 내에 기록해 두고 매월말 보고서와 함께 반드시 지방부 상향회에 보고하라(특히 청녀 시상 카드에의 등록에 필요함)

나. 공과반 등록인수 및 자격.

가) 봉사이삭줍기반 — <sup>세</sup>고교졸업 및 만 18<sup>세</sup>이상 26세 이하의 미혼 남녀(그 이상의 기혼 및 미혼 남녀도 포함시킴)

나) 기수반(남자 고등반) — 남자 고등학교 1. 2. 3학년생 및 만 15-17세인 형제.

다) 월계반(여자 고등반) — 여자고등학교 1.2.3 학년생 및 만 16-17세인 자매.

라) 전위대(남자 중등반) — 남자 중학교 1. 2. 3학년생 및 만 12세 - 만 14세 까지의 형제.

마) 장미반(여자 중등반) — 여자 중학교 1. 2. 3학년생 및 만 12-15 까지의 자매

\*특별한 경우(교사부족. 회원부족. 교실부족. 기타원인에

한하여 (1)봉사이삭줍기반 }  
(2)기수, 전위대 } 으로 합쳐도 좋으나  
(3)월계, 장미반 }

가. 기록만은 별도로(원칙대로)한다.

\* 월계반, 장미반 회원은 청녀 시상 카드에 옮기고 반드시 매달 보고서와 함께 누계 기록 및 세부 사항을 기입해 보내라.

\* 청녀 상향회 역원 시상 카드에 반드시 기재하고 변경되더라도 계속적으로 기입보고 하라.

\* 가능한대로 확실한 출석자 수를 헤아리고, 기입하라.

### 3. 상향회 교재들.

가. 역원을 위한 교재.

- 1) 상향회 회장단 안내서
- 2) 특별한 보조 교재(청색 팸프렛)
- 3) 상향회 선교부 안내서(노랑색 책자)
- 4) 강력한 지도력을 통한 인격강화(청색책자)
- 5) 청남 지도자 푸토그램 소책자(연두색)
- 6) 소녀 푸토그램 소책자.

나. 공과 교재

- 1) 봉사이삭줍기반(파랑색 책자)
- 2) 기수반 ( " )
- 3) 월계반 (분홍색 " )
- 4) 전위대 (노랑색 " )
- 5) 장미반 (노랑색 " )
- 6) 전위대 보조교재(흰색 팸프렛)

다. 활동 교재

- 1) 상향회 게임북(청색 46판)
- 2) 응변책자(너는 말하기를 배울 수 있다)



- 3) 응변, 연극 안내서
- 4) 음악책자
- 5) 음악교재
- 6) 오락노래책
- 7) 로드쇼는 재미있다.
- 8) 로드쇼 공부와 제작을 위한 20가지.
- 9) 상향회 계획 작품집.
- 10) 무용교본 소책자.

라. 기록부

- 1) 청녀 지부 기록부(분홍색 46판)
- 2) 청남 지부 기록부(흰색 46판)
- 3) 청녀 누계 기록부(파랑색)
- 4) 청녀 시상 카드(명함판)
- 5) 역원 수첩(노랑색 수첩)
- 6) 개인 수상 카드(명함판)
- 7) 개인 수상 카드(명함판)
- 8) 기수 권위대 명예카드(명함판)

마. 아젠다

- 1) 지부 상향회 회장단 협의사항(첫주) — 노랑색
- 2) 지부장단 참석 청남 상향회 기록(두째주) — 초록색
- 3) " " " (셋째주) — 초록색
- 4) 지부 상향회 월례 준비회 협의사항(네째주) — 분홍색
- 5) 청녀 시상 기록 누계 보고서 — 흰색

바. 기타

- 1) 추가된 회원록, 역원록, 재산 도서목록, 특기자 명단.

2) 각 지부의 지방부에 대한 건의, 제의, 문의 사항 및 활동사항을 기록한 사진 및 글.

2. 월말에 보낼 보고서는 기일내에 빠짐없이 보낼것.

ㄱ. 아젠다 — 4장(4주 역원회의 기록)

ㄴ. 매월 청녀 — 월례 안내 보고서(흰색) — 장미, 월계

ㄷ. 월말까지의 청녀 역원 시상 기록보고(청녀 지도자 출석 사항)

ㄹ. 청녀 기록 보고서(분홍색)

ㅁ. 청남, 청녀 월례 보고서(파랑색)

ㅂ. 청남, 청녀 월례 보고서(파랑색)

ㅅ. 그 달의 지부 특별활동 사항(내용. 참가자. 총출석자)

ㅇ. 지부 등록인수에 변화된 명단 및 그 사항(이전자 추가 등록자)

ㅈ. 목록 변동 기록(회원록, 역원록, 재산목록, 도서목록, 특기자 명단)

ㅊ. 지부 상향회 특별 계획에 대한 지방부에의 요청 사항. 문의사항, 애토사항 기재.

ㅌ. 부족된 공과책, 보조교재 및 구입 물품에 대한 요청사항

ㅍ. 기타 상향회에 부족된 것이나 필요한 것에 대한 요구 및 상의점.

ㅋ. 지방부 요청 명단(선수명단, 참가자 명단 등 합동 활동이나 경기가 있을 때의 요청)

ㅎ. 지방부 기관지 "성도의 벗"에 기고할 지부활동 및 특기할 사항을 찍은 사진이나 내용을 문장화 하여 보내면 게재에 가능하도록 하겠음.

7월분 침례를 받은 사람들

대구지부

곽병천  
김수선  
오상길  
최찬  
함용기

부산동구지부

김곽호  
김해권  
이석규  
정관수  
한명자  
임정희

성동지부

김기환  
김순엽  
오정순  
이영숙  
이인순  
진교순  
홍옥자

삼청지부

김성권  
김소순  
송연순  
이계형

청운지부

양경혜  
이형순  
임재영  
장철호  
추창호

서부지부

최승삼

### 편집 후기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마다 "마음에는 원이되 육신이 약하도다"하는 주님의 말씀을 연상하게 됩니다. 마음 같아서는 어느 책 보다는도 훌륭하게 만들고 싶었지만 막상 편집을 하고 나니 유감스러운 점이 한 두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인쇄가 제한된 타이프로 하니 편집다운 편집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선 대회를 기해서 창간호를 발간하고 싶은 욕심으로 만신창의로 여러분앞에 선을 보이오니 우리 성도들이 다같이 대견스럽게 보아주시기를 바라며 여러 성도들의 끊임없는 편달로 발전하기를 바랍니다.

앞카바의 "성도의 밭"은 고 김호직 장노님의 친필을 영인한 것입니다.

이번 "성도의 밭" 출판에 수고하신 번역실의 형제자매님께 감사를 포함합니다.

- \* - \* - \* - \* - \* -

### 원고 모집

보낼곳 — 선교부 "성도의 밭" 편집부.

제출기일 — 매월 15일내

1. 내 지부 자랑
2. 신앙 간증
3. 성시, 시, 금언
4. 어떻게 모트돈이 되었나?

# 성도의 벗, 신청서

지부명 \_\_\_\_\_

지부장서명 \_\_\_\_\_

성명 \_\_\_\_\_

연령 (            세 )

\_\_\_\_\_개월분 (    월부터    월까지 )을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송부 해 주시  
기 바랍니다.

성도의 벗 편집부 앞



## 영수증서

지부명 \_\_\_\_\_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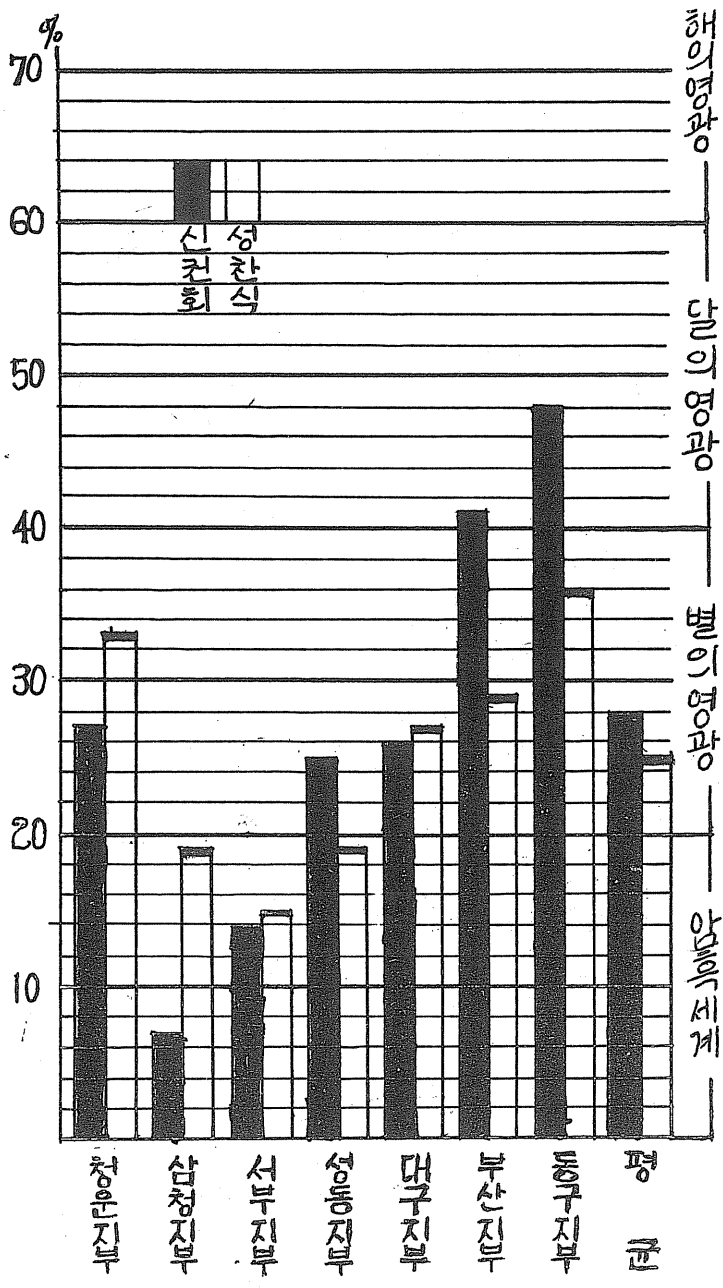
성명 \_\_\_\_\_

연령 (            세 )

\_\_\_\_\_개월분 (    월부터    월까지 )

위의 사람은 '성도의 벗' 대금 \_\_\_\_\_개월  
분을 정히 영수하여 매월 송부 해 줄것을  
약속 함.

성도의 벗 편집부



末日聖徒 예수 그리스도 教會  
韓國宣敎部

(住 所 錄)

宣敎本部	서울특별시종로구청운동 7번지
淸雲支部	73-3995
三淸支部	서울특별시종로구삼청동 5번지
	72-3596
城東支部	서울특별시성동구유락동산12의24번지
西部支部	서울특별시서대문구충정로 2가58의 1
	73-1208
大邱中央支部	대구시삼덕동 2가 24번지
	2-6659
釜山支部	부산시동대신동 3가 95번지
	2-1371
東區支部	부산시동구수정동 658의 10

성도의 벗

發行人 개 일 이 · 카  
編輯人 具 重 植

發行所 서울特別市鍾路區淸雲洞 7  
印刷所 末日聖徒 예수 그리스도 教會 韓國宣敎本部